

에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블리워는 우리 나라에는 소문난  
명소, 명승지들이 참으로 많다.  
송도원도 바로 그 많은 명소중  
의 하나이다.

강원도 원산시 송흥동에 자리  
잡고있는 송도원은 마식령산줄기  
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  
서 뻗어내린 산밭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동해의 푸른 물결,  
눈부신 백사장, 푸른 소나무숲,  
붉게 핀 해당화 등이 잘 조화되  
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  
이다.

이곳 지명을 송도원이라고 부  
르기 시작한것은 700여년전 바다  
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하  
여 이곳에 소나무를 옮겨심은 때  
부터였다.

송도원은 바다기슭을 따라 너  
비 40~100m, 길이 2.7km의 횡보  
래부리가 띠모양으로 놓여있을뿐  
아니라 바다밑물매가 3~5° 로  
서 매우 느리므로 기슭에서 바다  
로 100m까지 들어가도 물깊이가  
1.5~2m정도밖에 안되며 그 옆  
에는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있  
어 해수욕장으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하여 이곳은은 오늘 우리  
나라 사람들뿐아니라 외국인들도  
수많은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  
로 되고있다.

그러나 송도원의 명성은 단순히  
이름난 자연풍치에만 기인된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돈값고 권세있는자들  
의 유흥터, 돈벌이터였던 이곳  
에 어린이들의 사랑의 집인 소  
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인민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휴양시설들이  
일떠선 그때로부터 송도원은 자  
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함께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인민사  
랑의 역사를 길이 전하는 조선의  
송도원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

아직은 전쟁의 상처를 채 가시  
지 못했던 주체48(1959)년 6월  
풍치아름다운 송도원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지을때 대  
한 파업을 주시고 몸소 그 러전까  
지 잡아주시었다.

그 때 로 부 터  
몇해후인 주체  
50(1961)년 9월  
강원도 일대 를  
현지지도하시던  
김일성주석께서  
는 송도원소년  
단야영소를 친히  
찾아주시었다.

저저마다 환성  
을 울리며 한달을  
에 달려나와 그이  
품에 안겨든 어린  
이들을 한품에 안  
으신 수령님께서  
는 맑고 푸른 동  
해와 조화를 이  
룬 야영소건물을  
바라보시며 송도  
원은 참 좋은 곳  
이라고, 이 좋은  
곳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마음  
껏 뛰놀게 되었  
다고 못내 기뻐  
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이곳은 하도 자라  
가 좋아서 다른데  
쓰려고 아끼고있  
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에 소년단야영소  
를 지어주라고  
하시였기에 이렇  
게 지었다고 말  
씀을리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일 좋은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준것은 참 잘한 일  
이라고, 그걸 누구에게 주겠는가  
고,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몇번이나 말씀하  
시었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동해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명승 송도원에는 어린이들의 야영  
소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송도원에 깃든 절세위인들  
의 후대사랑의 역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뜨겁  
게 새겨지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벌  
려놓은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과 제국주의련  
합세력의 《핵사찰》소동으로 하  
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 어느날 지구를 뒤흔드는 강한  
충격파와도 같은 소식이 온 세상  
에 전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  
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  
으시였던것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배  
모양의 건축형식을 자랑하며 번  
듯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  
단야영소를 만족여린 눈길로 바  
라보시다가 야영소를 건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었다고 말씀 올리

는 한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  
에서 마음먹고 어린이들에게 주  
이 땅위에 후대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5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  
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린이들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국제소년단야영소가 오늘처럼  
훌륭히 개건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이 땅위에 후대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5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  
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린이들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후대판이  
구절구절 맥박치  
는 뜻깊은 말씀  
이었다.

송도원에 새  
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  
대사랑의 역사는  
오늘 또 한분의  
절세 위인이 신  
경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게시여 련면히 이  
어지고있다.  
지난 5월  
2일 이곳에서  
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석하에 세상에  
돌도 없는 아  
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홀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  
단야영소 준공식  
이 성대히 진행  
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제  
에 맞게 송도원

오늘도 송도원의 바다풍치와  
어울려 절경을 이룬 야영소에  
서는 행복넘친 아이들의 웃음소  
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  
지고있다.  
이른아침 송도원의 푸른 물결  
위로 랑랑히 울려퍼지는 기상나  
팔소리로부터 즐겁게 뛰노는 소  
년단원들의 씩씩하고 명랑한 모  
습, 밤이 깊도록 꺼질줄 모르는  
야영소의 불빛과 아이들의 행복  
한 노래소리, 이것은 정녕 후대사  
랑의 최고화신들이신 절세위인들  
의 뜨거운 은정속에 조국의 미래  
가 자라는 키톤음소리이고 그들  
의 리상과 포부가 한껏 나래치는  
세찬 퍼덕임소리이며 찬란한 래  
일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힘  
찬 진군소리이다.

송도원은 앞으로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사랑  
이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것인  
가에 대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추억과 함께 그 위대한 사랑이  
있어 선군조선의 미래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는 력사의 진리를  
가슴뜨겁게 전하며 조선의 송도  
원으로 세상에 같이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후 대 사 랑 의 정 치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  
와 질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  
었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인민주  
권의 첫 의정조로 어린이들의  
연필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하  
도록 하신 가슴쓰거운 이야  
기는 오늘날 길이 전해지고  
있다.

그이에게 있어서 제일 기  
쁘신 날은 온 나라 아이들이  
새움을 일었다는 보고를 받  
으신 날이었고 쌓이신 괴로  
를 푸시던 날도 아이들의 노  
래춤속에 계시던 날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  
의 생활에서 특별한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을 때라고, 이  
것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  
고있는 행복관이라고 하시며  
한평생을 미래사랑의 위대한  
사상으로 수놓아오시었다.

하 기 에 아 이 들 은 일  
년 삼백에 손다섯날중에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설  
날을 제일 기본 날이라고 노  
래를 불렀다.  
그렇게 기다리고기다리던  
설날이 되었지만 환하게 웃  
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다시  
는 만나뵈을수 없는 슬픔에  
온 나라 아이들이 몸부림치  
던 주체84(1995)년의 설날 아  
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설맞  
이공원무대가 아니라 눈보라  
사나운 다박출초소를 찾아가  
시었다.

아이들의 천진란만한 웃음  
을 없애버리고 공화국을 말  
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  
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선군  
의 총대고 지부시고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그이께서  
는 끝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걸고걸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의 력사  
를 영원토록 이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에  
돌도 없는 훌륭한 야영소와  
병원, 유희장과 놀이터들을  
꾸려주시고 부모없는 아  
이들에 이르기까지 천부모의  
국진한 정을 다 안겨주오게  
시킨다.

아이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일류급으로 훌륭히 지어주시  
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다 주지 못한 사랑이 있을세  
라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수  
도에서 멀리 떨어진 먼곳의  
야영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었고 치료를 받는 어  
린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  
여 나라일을 돌보시는 바빠  
신 속에서도 아동병원에까지  
몸소 들려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밤마다 부모들  
의 따뜻한 품을 더듬어찾을  
부모없는 고아들의 작은 손  
을 꼭 잡아주시면서 대동강  
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  
육원을 새로 훌륭히 건설하

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며  
날아준 부모도 주지 못할 따듯  
한 사랑과 정을 다 기울여주  
시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끝  
이 없이 벌어지는 내전과 전  
쟁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  
고 부모없는 고아가 되어 락  
엽처럼 버림을 받고있으며  
사회의 희생물로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스러지고있  
는 가슴아픈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무료  
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  
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  
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  
우고 나라의 기둥감들로 무  
력무력 자라나고있다.

민족의 앞날, 나라의 만년  
대계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  
우는가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제일  
로 사랑하시는 인민사랑의 화  
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아버지모시어 공화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는 그토록  
밝고 휘황찬란한것이다.

동성희

## 송고한 인민사랑의 화풍을 펼쳐라

수십년전 보통문에서 평양역에 이르는 창  
광거리를 건설하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설  
장을 돌아보시다가 덩치가 큰 어느 한 병용  
식고충살림집위에 빼죽빼죽 솟은 콘크리트  
기둥을 보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무엇을 지으  
려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차고를 짓고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주위에 있는 병  
용식살림집을 가리키며 몇세대짜리인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그 일군이 800세대라고 대답을리자  
장군님께서는 한세대에 아이들이 세명씩 있  
는것으로 보아도 2 000명이 넘을것이라고,  
그런데 집위대다 차고를 지으면 그 술한 아  
이들은 어디서 놀라는것인가고 준절히 말  
씀하시었다.

사람들의 생활에 널리 리  
용되는 모자는 헤아릴수 없  
으며 그 종류와 모양새도 각  
양각색이다.

외도단장을 돌구어주고 품  
격을 높여주며 때로는 눈바  
람이나 뽕약벌레로부터 머리  
도 보호해주는 모자, 계절에  
따라 다르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취미와 기호에  
따라 사람들이 각이하게 쓰  
군 하는 모자이다.

그 많고많은 모자가운데  
서도 제일 흔하고 소  
박한 모자를 꼽는다  
면 농림모가 아니겠  
는지...

지금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는 그 어느 농촌에  
가보나 농림모를 쓰고 곡식  
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런데 레  
사롭게만 보아왔던 이런 농  
림모가 새삼스런 의미로 가  
슴에 와닿는것은 무엇때문  
인가.

며칠전 과학자휴양소건  
설장을 왔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은 사람  
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수수한 농림모를 쓰시고  
과학자들을 위해 건설되는  
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들에게 안겨주는 휴양소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최  
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휴양소문주

## 차고대선에 꾸려진 아이들의 놀이터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려주어야겠다고 타일러주시었다.

한 일군이 살림집과 차고사이의 공간에  
놀이터를 꾸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다 세운 기둥들을  
뿔아버리기가 아쉬워 그러는가고 되물으시  
며 저 콘크리트기둥들은 극상해서 차고의  
천정밖에 더 떠받들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어린이들은 온 조국을 떠받들게 될 나라의  
기둥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왕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꾸려줄바에는 온전하게 꾸려주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생각할것없이 콘크리트  
기둥들을 다 뿔아버리고 그 자리에 아  
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마당도 넓게 닦아주고  
놀이들이 소용할수 있게 간단한 휴식장소도  
꾸려주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본사기자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내는 학생소년들



## 복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에 실린 글중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7천만  
겨레의 념원이며 숙원이다.  
이남국민도, 북인민도, 해외  
동포도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소망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부  
르며 《이 목숨 다 바쳐 통일  
을 이루자》고 념원해왔다.

...

통일을 이루자면 통일의 한  
쪽 주체인 북에 대해서 제대  
로 알아야 한다. 북을 제대로  
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저 북을 갔다오면  
다 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  
러면 북을 갔다 오지 않으면  
북을 모르는것인가.

북을 안다는것은 한마디로  
복지도자의 위대성과 동시에  
북인민의 위대성을 옹호로 리  
해하는것이다. 그것은 북사회  
가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성을 가지고있기때  
문이다. 북의 지도자들은 비  
록 작은 나라이지만 일제와  
미제와 맞서 싸운, 제국주의  
와의 투쟁경험을 갖고있을뿐  
만아니라 이들의 가문에 대대  
로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왔다는것도 하나의 리  
유가 된다. 또 하나의 리유는  
힘센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피로혀온 인류사속에서 자기  
의 고유성을 지키며 힘의 크

고 작음에 상관없이 호혜평등  
의 국제관계를 건설하는 일과  
자국의 운명을 자신들이 개  
척해나갈수 있는 주체사회건  
설의 지도적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독창적인 주체철학리  
론》과 이의 실천이 지도자의  
위력에 의하여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사회의 가장 두  
드러진 특징은 지도자와 인  
민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개중에는 미국언론들과 이  
를 추종하는 남쪽의 언론  
들이 《탈북자》를 말하고  
《인권문제》를 말하지만 이  
사회를 리탈하는 수자는 국

히 소수에 불과하다. 다시말  
하면 99.9%의 인민들이 지도  
자와 하나라는 사실이다. 지  
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것  
이다.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천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  
며 그이를 만나는 기회가 있  
으면 눈물과 환호성으로 소  
리칠 정도로 가슴뜨겁게 존  
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인민  
들이나 국민들을 가진 나  
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북을 빼고는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사회가 지도자의 옳바  
른 령도없이 가능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미  
국지배세력과 이를 추종하

는 민족분열주의자들은 이  
렇게 하나된 사회를 향하여  
지도자와 인민을 따로 갈라  
놓고 《독재》니, 《자유》  
니 하면서 북을 헐뜯어왔다.  
우리는 북을 바로 알아  
야 한다. 북사람들은 남나  
로소를 막론하고 민족자존  
심을 가장 내세우며 지도자  
(수령)－당－대중(인민)이  
하나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일심단결된 사회라고 굳지  
높게 자랑한다. 우리는 이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주체리  
론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담  
고있는 《수령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겸허한 마  
음으로 학습하고 리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  
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  
이 보이기때문이다.

본사기자

## 단 상 농 립 모

언제인가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시어 보도블록조깅에  
돌아난 잡들모 손수 뽕으  
며 인민을 위한 관점과 태도  
를 바로세울때 대하여 간곡  
한 말씀을 하시였던 그날에  
도 그이께서는 바로 농림모  
를 쓰시게하시었다.

인민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나날에 원수님 자  
주 쓰시곤 하는 농림모.  
생각이 깊어진다.  
한생을 땅과 함께 산다는  
농민들보다 더 많이 포전길  
을 걸으신 아버지이수령님께  
는 농림모를 즐겨쓰시고 이  
땅을 가꾸어주시지 않으셨  
던가.

언제나 농민들과 함께 계시  
며 농사일도 의논하시고 몸  
소 논밭의 맛도 보여주시며  
영농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

오시는것이다.

인민들과 허물없이 인민들  
과 꼭 같은 모습으로, 평범한  
인민의 아들로 사신 위인들  
의 인민적품모가 뜨겁게 어  
려오는 농림모이다.

곡식을 가꾸고 자배우는 농  
민들이 흔히 쓰는 수수한 농  
림모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지금 이 시각에도 쓰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강성국가  
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  
꾸시며 애국헌신의 땅방울을  
바쳐가고계신다.

비록 수수하지만 그 농림  
모를 쓰신 원수님의 모습에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감동깊게 뵈옵고있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본사기자 리경월